〈인권친화교실〉 1차 인권교육 패키지

‘우리 별 인권 약속’ 활동해설집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4. 4.

1차 인권교육 패키지 〈우리 별 인권 약속〉 안내

〈우리 별 인권 약속〉 인권교육 패키지는 인권친화교실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1차 인권교육 자료입니다.

〈우리 별 인권 약속〉을 통해 어린이들은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함으로써 '먼 나라의 이야기' 이거나 이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인권을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된 인권선언문을 접하고, 구체적인 인권의 항목을 이해합니다. 나아가, 인권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인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토론과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학습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되고, 협력적인 학습과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평등과 비차별, 존중 등 인권의 가치를 직접 경험합니다.

>우리 별 인권 약속 웹페이지 바로 가기

1차 인권교육 패키지 〈우리 별 인권 약속〉 목적

- 〈우리 별 인권 약속〉을 통해 인권친화교실 참여 학생들은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전세계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 인권친화교실 선생님과 학생들은 세계인권선언의 구체적인 권리 항목을 이해하고, 인권의 가치를 보급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 인권친화교실 선생님과 학생들은 지역적,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인권보호를 실천합니다.
- 인권친화교실 학생들은 참여적 수업방식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경험하고, 토론, 비판적사고, 분석의 기량을 향상합니다.

1차 인권교육 패키지 〈우리 별 인권 약속〉 구성

〈우리 별 인권 약속〉 인권교육 패키지는 총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활동지 '어느 별 인권 이야기' & 세계인권선언

수업시간에 활용되며 어린이들에게 1장씩 배포되는 활동지입니다. 어린이들은 활동지 앞면에 나오는 6개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읽어보고, 별의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해봅니다. 또한, 별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필요한 권리 항목을 '약속 스티커'에서 찾아 스티커를 별 주위에 붙여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지구별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 지구별 인권약속인 세계인권선언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지구별 인권 약속'

학급별로 1장씩 배포되는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포스터입니다. 배포된 포스터는 '나의 손바닥 약속' 만들기 활동이 끝난 후 어린이들이 자신의 손바닥을 붙여야 완성됩니다. 완성된 포스터는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세계인권선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급에 붙여주세요!

3. 약속 스티커

활동지 '어느 별 인권 이야기'와 학급별 세계인권선언 포스터에 활용하는 스티커입니다. 활동지에 붙이는 권리 스티커와 '나의 손바닥 약속'을 만드는 스티커가 담겨있습니다. 권리 스티커는 활동지에 붙이고 '나의 손바닥 약속'은 직접 모양을 만들어 학급용 세계인권선언 포스터에 붙입니다.

활동방법

활동1. 활동지 '어느 별 인권 이야기'

2~6명 모둠을 만들어 활동지를 읽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게 필요한 권리를 약속스티커에서 찾아 이야기 사례 옆에 붙이도록 한다.

① 각 학생에게 활동지와 권리스티커를 1장씩 나눠준다.
② 모둠(2~6명)을 만들어 활동지 내용을 읽고, 각각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 학년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사의 판단에 따라 모둠(2~6명)을 구성한다.)
③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필요한 권리 항목을 약속 스티커에서 찾아 별에 붙인다.
④ 모둠별로 어떤 약속 스티커를 붙였는지, 왜 붙였는지 이야기해본다.
⑤ 모둠별 활동 후 느낀 점에 관해 이야기해본다.
⑥ 이야기 사례가 현재 지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⑦ 약속 스티커의 내용을 통해 세계인권선언과 그 내용을 소개한다.
⑧ 이야기 사례와 비슷한 실제 사례를 살펴본다.

활동2. '인권을 위한 나의 손바닥 약속'

지구별 약속인 〈세계인권선언〉과 지구별 인권침해 사례를 접한 후,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약속을 만들어 보고, 학급에서부터 실천해본다.

① 약속 스티커의 왼쪽에 자신의 손바닥 모양을 그린다.
② 그린 손바닥 안에 자신의 인권 약속과 이름을 쓴다. (매직/네임펜 이용)
③ 손바닥 모양대로 스티커를 자르고, 세계인권선언 포스터에 붙인다.
④ 어린이들과 함께 완성한 세계인권선언 포스터를 교실 뒤편에 붙이고, '나의 손바닥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 국제앰네스티가 제공하는 본 활동해설집 참고자료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세요!

교사Tips

- 인권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통해 인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 인권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 해설집에서 제안한 내용에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 사례를 통해 인권의 기본원칙을 알려준다.
  - **인권의 보편성**: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인권의 상호의존성**: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빵'과 '장미' 모든 것이 필요하며, 인권의 목록은 서로 연결돼 있다.
  -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목록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보장돼야 한다.

선생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인권교육 패키지는 국제앰네스티 후원자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받으신 자료는 꼭 사용해 주세요!
- 인권교육 패키지 활용 후기와 수업 모습을 사진으로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해주세요. 사진 올리는 곳: cafe.naver.com/amnestyschool
- 5월 뉴스레터를 통한 1차 인권교육 패키지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세요!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 학급별 포스터는 학급에 꼭 붙여주시고, 활동지는 각자 가지고 돌아가 집에 붙여놓기를 독려해주세요.

참고자료 (1) 1차 인권교육 패키지 〈우리 별 인권 약속〉 교수-학습 지도안

※ 국제앰네스티가 제안하는 수업방식입니다. 학급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 colspan="2">활동명</td><td>우리 별 인권 약속</td><td>활동형태</td><td>토론, 발표(2회기 기준), 강의, 공작</td></tr>
<tr><td colspan="2">학습 주제</td><td colspan="3">너와 나, 우리 모두의 인권</td></tr>
<tr><td colspan="2">학습 목표</td><td colspan="3">– 〈인권친화교실〉 참여 학생들이 1차 인권교육패키지를 통해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전 세계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 항목을 이해하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선다.
– 인권을 위한 개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인권보호를 실천한다.
– 참여적 수업방식을 통해 토론, 비판적 사고, 분석의 기량을 향상한다.</td></tr>
<tr><td colspan="2">예습적 과제</td><td colspan="3">'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td></tr>
<tr><td colspan="2">준비자료</td><td colspan="3">인권교육패키지(활동지, 스티커, 포스터), PPT, 영상</td></tr>
<tr><td>수업</td><td>학습요소</td><td colspan="2">교수-학습활동</td><td>자료</td></tr>
<tr><td rowspan="3">1
교시</td><td>흥미 유발
(5분)</td><td colspan="2">❍ 내가 생각하는 인권은? 나에게 인권이란? (브레인스토밍)
인권이 무엇인지,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본다.</td><td>PPT</td></tr>
<tr><td>인권의
이해
(25분)</td><td colspan="2">❍ 어느 별 인권 이야기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 권리의 항목을 이해한다.
● <u>활동지 〈어느 별 인권 이야기〉 활용 방법</u>
➢ 〈어느 별 인권 이야기〉 활동지는 우주여행 중 도착한 여섯 개의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 2~6명 모둠을 만들어 활동지 내용을 읽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게 필요한 권리를 약속스티커에서 찾아 이야기 사례 옆에 붙이도록 한다.
① 각 학생에게 활동지와 권리스티커를 1장씩 나눠준다.
② 모둠(2~6명)을 만들어 활동지 내용을 읽고, 각각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 학년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사의 판단에 따라 모둠(2~6명)을 구성한다.)
③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필요한 권리 항목을 약속 스티커에서 찾아 붙인다.
④ 모둠별로 어떤 약속 스티커를 붙였는지, 왜 붙였는지 이야기해본다.</td><td rowspan="2">활동지
약속 스티커</td></tr>
<tr><td>마무리
(10분)</td><td colspan="2">⑤ 모둠별 활동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이야기 사례를 다른 곳에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 우리 주위에도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⑥ 이야기 사례가 현재 지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td></tr>
<tr><td rowspan="3">2
교시</td><td>세계인권선언
소개 (5분)</td><td colspan="2">❍ 지구별 인권약속 – 세계인권선언 소개
약속 스티커의 내용을 통해 세계인권선언과 그 내용을 소개한다.</td><td>약속 스티커
PPT</td></tr>
<tr><td>지구별
인권 이야기
(25분)</td><td colspan="2">❍ 지구별 인권이야기 – 인권침해사례 소개
활동지 별 이야기가 모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야기구체적사례와 비슷한 실제 사례를 살펴본다.</td><td>PPT</td></tr>
<tr><td>나의
손바닥 약속
(10분)</td><td colspan="2">❍ 나의 손바닥 약속 만들기
지구별 인권약속과 지구별 인권침해 사례를 접한 후,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약속을 만들어 보고, 학급에서부터 실천해본다.
● <u>〈인권을 위한 나의 손바닥 약속〉 활동지 활용 방법</u>
(ㄱ) 약속 스티커의 왼쪽에 자신의 손바닥 모양을 그린다.
◦ 손바닥 모양의 의미는 내가 만든 약속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손바닥 약속'임을 안내한다.
(ㄴ) 그린 손바닥 안에 자신의 인권 약속과 이름을 쓴다. (매직/네임펜 이용) (ㄷ) 손바닥 모양대로 스티커를 자르고, 세계인권선언 포스터에 붙인다.
(ㄹ) 학생들과 함께 완성한 세계인권선언 포스터를 교실 뒷편에 붙이고, 인권을 위한 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td><td>약속 스티커
포스터
PPT</td></tr>
</table>

참고자료 (2)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국제기구에 의하여 주창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이자,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된 인권선언문이다.

인권선언은 인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법 앞에 평등, 공정한 재판, 표현과 활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자국의 정부 정책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12조), 사유재산권(17조), 언론의 자유(19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집회결사의 자유(20조), 거주이전의 자유(13조) 등을 선언하고 있고, 참정권을 구체화한 21조가 있다.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는 22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및 식량, 물, 위생시설에 접근할 권리 등이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선언을 한 22조에 이어, 일할 권리(23조), 동일한 일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23조),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25조), 교육받을 권리(26조), 문화적 권리(27조) 등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위와 같이 다양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직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목적”(29조)인 경우에 한정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 “이 선언에서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행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개인 또는 어떤 단체에 부여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특정인권을 부정할 목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본래의 가치에 핵심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가치들은 국제앰네스티가 펼치는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보기

첨부자료 (3) '어느 별 인권 이야기' 이야기 별 해설

이야기	두근별: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날 권리가 빼앗긴 사람들

두근이가 살던 별에서는 총을 든 군인들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①두근이는 폭탄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었고, ②학교에도 가지 못했어요. ③두근이의 부모님은 일하러 나갈 수도 없었어요. 두근이의 가족은 전쟁을 피해 다른 별로 피난을 갔어요. 하지만 ④새로 도착한 별에서는 두근이의 가족에게 이 별의 국적이 없다며 내쫓으려 해요. 두근이의 가족이 ⑤원래 살던 별로 돌아가면 죽을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①생명을 존중받고 안전할 권리(3조) ②교육을 받을 권리(26조) ③노동할 권리(23조) ④국적을 가질 권리(15조) ⑤안전한 곳을 찾아 떠날 권리(14조)

❍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14]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파티마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자신의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국내 실향민*이란?
무력 분쟁, 관행적인 폭력, 인권침해, 천재지변 또는 인공적인 재해의 결과로 또는 이를 피하고자 고향이나 주거지로부터 강제로 이주되거나 피난한 사람들 또는 집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으로 넘지 못한 사람들

전쟁을 피하려다 절망을 만난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실향민

아프간은 지난 10년간의 분쟁으로 인해 실향민이 된 사람들이 매일 400명, 총 50만 명에 달한다. 실향민들은 비위생적인 조건, 식수 및 적절한 주거지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산모와 영아의 사망 위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프간은 수년간 지속된 분쟁과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정부의 자원이 제한적이라 국가 전체가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및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amnesty.or.kr/onlineaction/3205/

❍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15] 30만 명이 넘는 소년병

소년병이란?

전 세계적으로 30 여만 명의 소년병이 분쟁과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나이가 9 살 정도인 아동들도 있다. 국제법은 18 세 이하 아동들이 무력갈등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15 살 미만의 아동을 분쟁 중 징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

소년병의 인권침해 상황

소년병으로 학교나 집, 거리 등에서 납치를 당해 전쟁에 동원된다. 분쟁지역의 경우, 만 18 세 미만 어린이 · 청소년들이 전쟁에 동원되는 경우가 잦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6 백만여 명의 어린이가 전쟁에서 심각하게 부상당했거나 평생 가져가야 할 장애를 입었으며, 2 백만 명이 사망했다. 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소년병은 스파이로, 메신저로, 짐꾼으로 일하기도 하며 지뢰를 제거하기도 한다. 징집되는 소년병 10 명 중 4 명이 어린 여성들이며 어린 여성들은 강간이나 성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amnesty.or.kr/?p=19384

이야기2	씩씩별: 살 곳을 잃은 사람들

이 별에 사는 씩씩이는 ①집이 없이 텐트에서 살아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은 수십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지만, ②가로등도 없고 경찰도없어서 ③밤이 되면 위험하고 무서워서 화장실조차 갈 수가 없어요. ④낮에도 혹시 누가 훔쳐볼까 봐 화장실에 갈 때면 불편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높은 빌딩을 세운다며 이 텐트마저도 없앤다고 해요. 이제 살 곳이 없는 씩씩이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죠?

① 의식주를 누릴 권리(25조) ②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권리(22조) ③ 생명을 존중받고 안전할 권리(3조)
④ 사생활을 누릴 권리12조)

✓ 학생들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소득이 낮거나 실업 · 질병 · 노쇠 등의 이유로 생활에 불안과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교육 · 의료 · 주거 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16]** 화장실조차 없는 집, 슬럼

슬럼(slum)이란?

현재 전 세계 10 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슬럼에 살고 있다. 슬럼 주민들은 깨끗한 물, 위생시설, 보건의료, 학교는 물론 그 외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다. 인구가 밀집돼 있고,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슬럼주민들은 폭력과 강제퇴거의 위험에도 처해 있으며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화장실 가기가 두려운 나이로비 슬럼 여성들

케냐 나이로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슬럼에 살고 있다. 나이로비 최대의 비공식 주거지 키베라(Kibera)에는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곳의 공용화장실은 한 곳당 적게는 50명, 많게는 150명까지 사용한다.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이 극도로 부족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대소변을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 곳에나 던져 버리는 '날아다니는 화장실(Flying Toilet)'이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자료실/슬럼/

❍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17]** 집을 잃은 프랑스의 로마족

로마족이란?

우리가 흔히 '집시'라고 부르며 유럽 등 전 세계를 유랑하는 소수민족이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로마족 인구는 2,000만 명 정도이고 유럽에만 6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로마족은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아왔다. '농노제도'에 묶여 노예와 같은 생활을 영유하는가 하면, 로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20 세기에는 나치 정부에 의해 대학살도 이뤄졌다.

로마족의 인권 침해 상황

유럽의 로마족은 '집시'라는 이유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적절한 주거환경, 의료, 교육 등도 보장되지 있지 않으며 임시집조차도 개발을 이유로 강제철거 당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집시 보고서'에 따르면 집시는 각 사회의 최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amnesty.or.kr/6842/

이야기3	똑똑별: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

다른 별에 살다가 얼마 전 이 별로 이사를 온 똑똑이는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 책도 읽을 수 있는 학교를 매우 좋아해요. 그런데 ①똑똑이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②학교 친구들이 생김새가 다르고 학비와 친구들과 어울릴 용돈이 없는 똑똑이를 놀리고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별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③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부모님은 똑똑이에게 학비와 용돈을 주지 못해요. 똑똑이는 학교도 가고 ④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①교육을 받을 권리(26조) ②차별받지 않을 권리(2조) ③노동할 권리((23조) ④문화생활을 누릴 권리(27조)

❍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 18]** 학교에 가고 싶은 슬로바키아 로마족 어린이 레나타

로마족 어린이의 인권

천만 명이 넘는 로마족은 유럽에서 인구가 많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차별받는 소수이다. 보건,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집에 사는 로마족의 어린이는 질병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거나, 학교에 가면 다른 친구들의 놀림과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격리 수업을 받는 로마 어린이들

로마족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편견과 행동은 교사와 학교운영자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로마족 아이들은 학교에서 집시 전용 그룹이나 교실에 분리되기도 하며 축소된 교육과정을 제공받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로마족이 로마족이 아닌 학생들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된 교실이나 건물에서 수업한다. " 가벼운 정신 장애 "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으로 배치되는 일도 있다. 2012년 유엔의 조사에 다르면,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로마족 아이 중 무려 43%가 여전히 분리된 교실에서 수업받고 있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로마족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19]** 여자아이도 공부시켜주세요! 파키스탄 말라라 유샤프자이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usufzai)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usufzai)는 11 살 때부터 파키스탄 지역에서 여성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해왔다. 2011 년에는 BBC 블로그에 자신의 고향 파키스탄에서 모든 여학교를 폐교하도록 한 탈레반의 포고령에 대한 불만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한다고 14세 소녀에게 총격을 가한 파키스탄의 탈레반

2008년 파키스탄의 스왓 계곡 지역을 점령한 탈레반은 “여성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여학교에 폐교를 명령하고 실제 여러 학교의 건물을 파괴했다. 탈레반은 여성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14세 말라라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말라라에게 총격을 가했다. 말랄라는 영국으로 후송되어 즉각적인 치료를 통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계속해서 탈레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탈레반은 만약 말랄라가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계속 그녀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amnesty.or.kr/onlineaction/6112/

이야기4	쌩쌩별: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사람들

쌩쌩이의 엄마가 쌩쌩이 동생을 임신했어요. 그런데 쌩쌩이의 별에서 임신은 무서운 거예요. ① 병원이 없는 이 별의 많은 임산부가 ②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쌩쌩이 엄마는 만삭이지만 무거운 짐을 지는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③쌩쌩이 엄마의 일터에서는 휴가를 주지 않거든요. 쌩쌩이는 엄마, 동생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①사회보장제도를 누릴 권리(22조) ②생명을 존중받고 안전할 권리(3조) ③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24조)

❍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20] 1분에 1명, 산모사망

산모사망

1 분당 한 명, 한 해 50 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사망하는 여성들의 95 퍼센트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이며 개발도상국의 국민이다. 이는 산모사망 역시 빈부 및 차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이른 죽음, 산모사망 1분에 한 명

어떤 여성은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혹은 병원에 도착해서도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다. 이러한 죽음 대부분이 감염, 출혈, 고혈압 등 예방 가능한 원인이다. 사망하는 여성들의 95퍼센트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이며 개발도상국의 국민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산모 사망 위험은 26명당 한 명, 의료 서비스가 가장 낙후된 국가에서는 7명당 한 명에 이른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산모사망

❍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21] 네팔, 아파도 말할 수 없는 여성들

네팔의 여성 차별

네팔의 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네팔 여성들은 자궁탈출증*으로 고통받는다. 네팔의 여성차별과 조혼 관습으로 인해 여성들이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골반 근육이 손상되어 자궁탈출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궁탈출증
골반 근육이 쇠약해져 자궁이 질을 따라 내려오는 것. 자궁탈출증의 원인은 너무 어린 나이에 출산하거나,연달아 아이를 많이 낳거나,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과도한 육체노동, 부족한 영양섭취, 미숙련 조산사,가정폭력 등이 있다.

네팔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은 자궁탈출증*의 원인이자 결과

현재 네팔에는 60 만 명이 넘는 여성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지만, 다수는 이 고통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살아간다. 네팔에서 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 관습을 거부하기 힘들고, 출산 전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도, 영양을 섭취하기도 쉽지 않으며, 심지어 고된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불필요한 짐: 네팔의 성차별과 자궁탈출증

이야기5	팡팡별: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사람들

팡팡이가 사는 별의 대통령은 ①선거도 하지 않고 힘을 내세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몰래 잡혀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팡팡이는 세상이 조금 바뀌기를 바라며, ②친구들과 모여 ③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그러자 ④경찰은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팡팡이를 데려다 감옥에 가뒀죠. 노래한 것이 죄인가요? 팡팡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①선거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21조) ②원하는 사람과 모임을 만들 권리(20조)
③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18, 19조) ④함부로 감옥에 갇히지 않을 권리(9조)

❍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22]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사람들

표현의 자유란?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특히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게 하도록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에게 자유를!

러시아의 페미니스트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이 모스크바에 있는 한 정교회에서 저항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종교적 증오를 기반으로 한 난동죄"로 죄수 유배지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푸시라이엇은 장기 집권하는 푸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노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됐으며, 자신의 견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이들은 '양심수'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표현의 자유는 비단 위험하지 않은 생각뿐만 아니라 "국가 혹은 다른 어떤 집단을 불쾌하고, 충격을 주며, 방해하는" 표현들까지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amnesty.or.kr/5760/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감되어 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

류 샤오보(Liu Xiaobo) 2009년, 중국의 민주개혁 촉진, 인권 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선언문인 '08헌장'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국가권력에 대한 전복을 선동한 협의'로 징역 11년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2010년 류 샤오보는 "중국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장기적이고 비폭력적인 투쟁"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류 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그는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amnesty.or.kr/onlineaction/6438/

이야기6 으뜸별: 고문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으뜸이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알리는 기자에요. 하지만 으뜸이가 사는 별에서는 법을어기더라도 ①돈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얼마 전 으뜸이가 고발한 ②정부 관료도 뇌물을 받았지만 처벌받지 않고 금방 풀려났어요. 오히려 ②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경찰은 으뜸이의 말을 믿지 않고 ③으뜸이가 친구와 나눈 문자와 이메일을 뒤져보는가 하면, ④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때리기까지 했어요. 으뜸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①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7조) ②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③함부로 감옥에 갇히지 않을 권리(9조) ④사생활을 누릴 권리(12조) ⑤고문받지 않을 권리(5조)

❍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23] 고문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고문이란?
자백 등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고문방지협약
정식명칭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84 년 12 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 협약은 취득, 자백 목적으로 또는 인종편견 등을 바탕으로 육체적 · 정신적으로 현저하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고문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금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 자유를 억압당한 기자, 에스킨더 네가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는 에티오피아의 기자다. 그는 2011년,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기사를 쓰고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뒤집어쓰고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amnesty.or.kr/onlineaction/7683/

납치되어 고문당하다 7개월 만에 풀려난 세 아이의 엄마, 미리암 로페즈
멕시코에서는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과 군인은 범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 고문하고 거짓자백을 받아 재판에 회부한다. 몇 해 전, 멕시코는 마약 관련 수사에 수천 명의 군인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이후 군인과 경찰에 고문을 당했다는 사건이 증가했다. 미리암 로페즈(Miriam López)는 여느 때처럼 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는 길에 납치당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80일을 감옥에서 보냈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amnesty.or.kr/onlineaction/7690

45년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
1968년, 하카마다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주의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68년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하카마다가에 대한 사형선고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구금 당시의 자백에 근거했다. 하지만 하카마다는 재판장에서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구타하고 협박해 범죄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것을 밝히고 자백 내용을 철회했다. 1심을 담당한 판사 중 한 명은 하카마다의 결백을 확신했지만, 다른 두 명의 판사의 의견 때문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카마다는 45년 동안을 감옥에서 사형수로 살고 있으며, 사형 집행의 공포에서 살고 있다.

☞ 캠페인 내용 자세히 보기: amnesty.or.kr/onlineaction/3229/